

2022년 7월 18일 오후5시 50분 브이콜밴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김

가. 개요

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를 하겠다는 브이콜밴 기사

건물에 공사가 있어 차량에 물건을 실어야 된다고 하니 강제로 밀치면서 거칠게 항의
“여기가 니 땅이냐? 왜 주차를 못하게 막느냐?”

“건물 앞에 주차하는 것은 곤란하다. 우리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.”

“우리나라에서 건물 앞을 막으면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이냐?”

“입구 말고 벽면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?”

“.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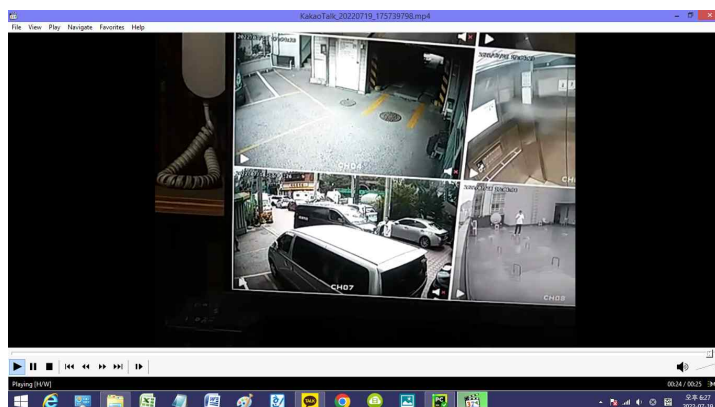
“그만두지 않겠다”면서 사진을 찍으며 거칠게 항의하고 30분만 주차하겠다고 하고 감”

나. 시간별 자료

1. 2022-07-18 월 17:50 브이콜맨이 건물 주차장앞에서 머뭇거리다 안쪽으로 들어간다.

우리 회사를 방문한 차량인지 싶어 살펴봤으나 지나갔다.

사진과 동영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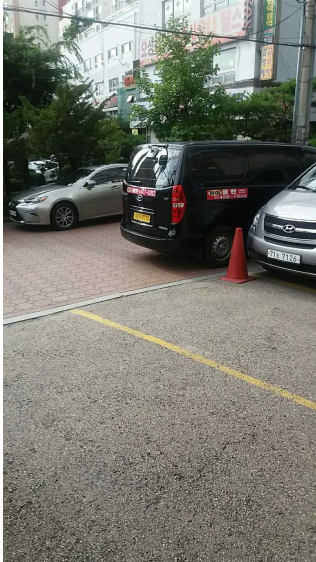
2. 2022-07-18 월 17:52 ? 브이콜맨이 후진하여 나타나며 건물 출입구 앞쪽에 세워 둔 삼각
콘을 치우고 주차하려고 하기에 말렸다가 다툼이 생겼다.

사진과 동영상



3. 2022-07-18 월 17:54 ? 브이콜밴이 30분만 영업을 하고 온다기에 주차하였다.

사진과 동영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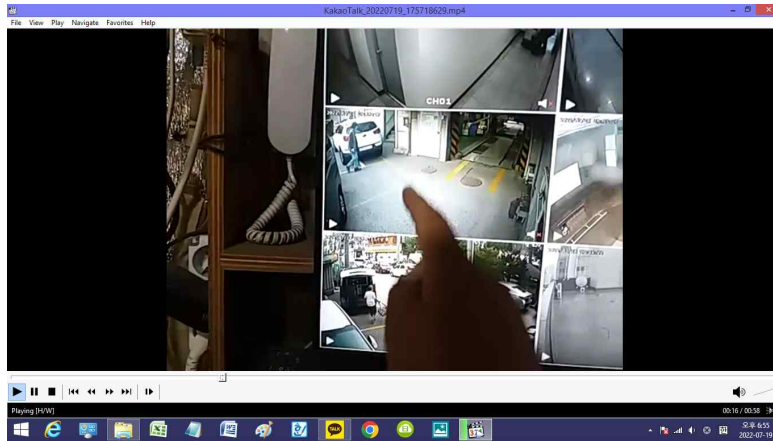
4. 2022-07-18 월 17:55 건물 출입구에서 찍은 사진

사진과 동영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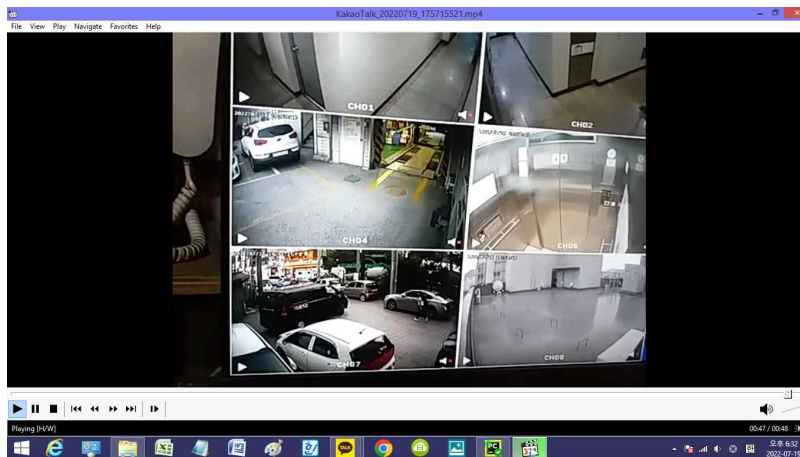
5. 2022-07-18 월 18:50 ? 904호 도배를 마친 공사팀이 자재를 실으려고 했으니 차량을 입구쪽으로 옮길 수가 없어 불편하게 짐을 싣고 있는 장면

사진과 동영상



6. 2022-07-18 월 19:55 브이콜벤 30분 주차한다더니 2시간 만에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감.

사진과 동영상



7. 계속 이런식으로 업무에 방해를 끼치는 차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

2022-03-23 국민권익위에서 건물입구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견인이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였는데 빠른 입법으로 분쟁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에서 제주까지, 전국은 주차 전쟁

상가 앞 불법 주차도 견인된다…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

입력 2022.03.03 17:50

♡ 6 💬 0

<권익위, 주차갈등 해소방안 권고>

모든 공동주택 '세대당 주차장 1면' 법 개정 권고

아파트·이면도로 불법주차도 견인이나 범칙금

차 2대 이상 구입 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검토

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스1

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.

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법, 주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, 분리분양제 주차장에 세대당 1면 이상